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지식 요구

이 은 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50년대 정결교육으로 시작된(김정옥, 1988)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이에 보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 결과로 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성교육 불필요론은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성교육에 대해 아직 ‘누가(교육자)’ ‘언제(교육시기)’ ‘왜(교육철학), ‘무엇을(교육내용)’ ‘어떻게(교육방법)’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의 한쪽 주체인 부모나 교사, 교육기관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내몰리고 있다(이은주, 1999).

그러나 성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아동들은 학교 현장에서 얻게 되는 성 정보보다 많은 것들을 일상 생활을 통해 마치 공기를 들며 마시듯이 흡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염려와 경계가 끊이지 않는다. 범람하는 성정보에 대한 노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는 청소년기 아동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며, 성교육과 관련한 연구 역시 주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이미 이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역시 증폭되어 폭주하는 우리 사회의 성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성문제인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고 있다. 또 평생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이 학교 성교육 중요한 지침이되면서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에서 성교육을 시작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따라서 후기 학령기 아동의 수준에 맞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효과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시기 아동의 성지식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교육도 대상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가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아동의 성지식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정해진 항목 중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혹은 ‘성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도처에 널려 있는 성표현물과 성담론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성인들이 정한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성지식 요구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내용에서 아동들이 알 것이라고 혹은 모를 것이라고 성인들이 짐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작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동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한 성지식 요구-성에 대한 아동들의 질문-를 파악함으로써 아동들이 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성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방식은 우리가 질문하는 종류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DeMacro, Campbell & Wuest, 1993).

성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와의 관계축을 형성하는 접합점이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성장, 복지, 건강 그리고 전체 인구의 증식과 관련된다(웁스, 1986/서동진, 채규형 역, 1994, p46). 따라서 간호사의 관심이 생식기 관련 질환과 임신 출산에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간호사는 아동을 성적 존재로써 인정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의 성이해 방식을 파악하여, 성과 관련한 현재적, 잠재적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가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지식 요구가 생기게 되는 근원으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성교육자로서의 위치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성에 대해 알고 싶어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성지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시기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깔려 있는 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일방향적인 성교육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지식 요구에 맞는 성교육과 상담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후기 학령기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의 내용을 파악한다.
- 2) 후기 학령기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의 집단별(성별, 학년별) 차이를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들이 임의 표출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응답방식이 아동들이 직접 서술하

는 것이어서, 서술의 어려움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4. 용어정의

· 성지식 요구

성지식 요구란 후기 학령기 아동들이 성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사춘기의 변화, 생식기관 해부생리, 재생산, 성건강, 성개념, 성적 경향 및 행위, 성문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II. 연구 배경

1. 아동기의 출현과 아동의 성

아동기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시대에 뿌리를 둔 성인세대가 그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창조한 비교적 근래의 소산물(서랜스키/윤종희, 이재연 역, 1992, p22)이다. 아동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성인들이 아동에 대해 다른 처우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적으로는 가정교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여론, 풍습, 규범, 법률, 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중대, 1987, p77-78).

우리나라에서 아동기가 출현한 것은 20세기 초기이며, '어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을 혈통을 잇거나 가문을 빛낼 자손으로 보며, 성인의 신념,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방식 등을 이어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던 기존의 아동관은 아동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직접적인 보살핌의 방식을 수정하면서 변화하였다(이은주, 1995).

새로운 아동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번째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이후 피폐해진 우리 삶의 희망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린이라는 존재를 일깨운 소년운동(안경식, 1994)이다. 두번째는 일제에 의해 주도된 식민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양육방식(김혜경, 1997) 학교규율(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1997)과, 의료 규율의 변화(조형근, 1997)이며, 그리고 세번째는 선교와 개화를 목적으로 한 서구 기독교의 의료, 선교, 교육 사업을 통해 전해진 서구의 사상의 영향이다(이은주,

1995). 이 과정에서 아동을 위한 공교육의 기간이 설정되고, 아동 중심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졌으며, 또 의료에 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아동관의 출현 이전에 아동의 성을 규정한 방식은 문헌으로 찾기가 힘들었고, 전통적인 성문화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성역압적 풍조가 덜하고 자유로운 남녀관계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이중적 성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유교적 성문화의 특성 중 하나는 성을 억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 금기적 성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남녀의 성에 대한 다른 규범을 적용하는 이중적 성윤리이다(최영애, 1996). 성, 특히 여성의 성은 생식과 관련하여서만 이해되었으며, 여아들은 다산과 남아출산, 그리고 남편의 양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권순형, 1997).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례나 관례를 거쳐야 했는데, 관례는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사이에도 성행하였으나 그 이하의 계층에서는 혼례가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다. 이 시기의 조혼 풍습으로 관례와 혼례는 15세 전후로 이루어졌다(신동원, 1999, p61-62). 하지만 이렇게 억압적인 성문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민들의 계층에서 전해지는 민담과 민요 등을 보면 성을 풍자하거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많고(p80-85), 이런 것을 아동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아동들도 이 시기의 성담론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 아동기란 개념이 나타난 17-19세기 이전과 유사하다. 아동들은 성인과 같은 의복을 입었고, 놀이를 하고, 노동을 하였으며(서랜스키, 1992, p27), 모든 대화, 농담의 자리에 끼어 있었고 연극에도 참가하였다(플랑드랭, 1981/동문선 편집부역, 1994, p171). 아동을 앞에 두고 전혀 신중하지 못했으며 약간 도가 넘친 성적인 농담에 끌어들이고(이시재, 1988), 또한 아동에게 숨기고자 했던 성의 비밀도 없었다(플랑드랭, 1981/1994, p171). 여아는 대개 4세에서 6세에 약혼을 하고 10세를 지나면 성숙한 젊은 여성으로 간주되었다(이시재, 1988). 중세의 교회법은 사춘기, 즉 남자는 열네 살, 여자는 열두 살에 달하면 결혼을 허락했으나, 이 연령은 더 낮게 적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16-18세기에는 몇 살 이후에는 결혼시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푸코는 서구에서 아동기란 개념이 생긴 시기에 '아동

의 성에 대한 교육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 '교육화' 과정은 모든 아동은 성적 활동에 몰두하거나 몰두하기 쉽지만, 그러한 성적 활동은 부당하며, 자연스러운 동시에 자연에 반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집단과 개인을 해칠 위험이 그것 자체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중적인 가정을 전제하였다. 아동은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예비단계를 밟고 있는 성적 존재로 규정되었고, 부모, 가족, 교사, 의사 그리고 나중에는 심리학자가 귀중하나 위태로 우며, 위험한 성의 싹을 따말게 되었다. 그 결과는 거의 두 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자위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났다(푸코, 1976/이규현 역, 1990, p118).

20세기에 들면서 갓난아기조차 성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프로이드(1907/김정일역, 1996)의 주장이 제기된 후, 아동의 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장이 이어졌고, 아동기의 성적 잠재성에 대한 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기에적인 행위, 예를 들어 자위행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성관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합의는 없다. 1985년 네델란드 정부는 12세가 적절한 합의연령이라고 선언하였으며, 대다수의 서구 국가는 14세 혹은 15세가 그것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다(웁스, 1986/1994, p120-121).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기의 출현 이후에도 아동의 성은 최근까지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아동은 성을 몰라도 되는 존재이며, 더구나 성적이어서는 안될 존재로, 아동을 성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을 순진무구한 무성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이 성에 근접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건, 혹은 그들이 성적 활동에 몰두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건 아동의 성은 성인의 그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받았다. 아동의 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언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연관된다.

2. 학령기 아동의 성교육

우리 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1950년대 '정결교육'으로 시작되어, 60년대는 '순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성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교부는 성교육 실시를 1982년도에 발표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3년에는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였다.

1984년에는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결과 학교교육에 '성교육'이란 용어가 정착되었다(김미주, 1997). 학교 성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나 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기 남성들의 성폭력 가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이은주, 1999). 교육부는 1996년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계획을 각 교육청에 시달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정규교과시간에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한겨레, 1996). 그리고 199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정규교과서를 가지고 성교육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구조, 이성교제, 성폭행 예방법, 성병예방과 치료 등 4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조선일보, 1996). 또 성교육의 적극화 시도는 성교육담당자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겼던 성교육 교재 혹은 지침서 개발이 교육 당국(예, 제주도교육청, 1996; 서울특별시교육청, 1996, 1998)과 민간 단체(예, 여성사회교육원, 1997;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예, 가족과 성상담소, 1996; 제주여성회 부설 여성상담소, 1996).

213개 초등학교의 성교육 실태를 조사한 김성주(1996)에 따르면 1-3학년은 1년에 1회 미만, 4-6학년은 1.3-5.9회 정도의 성교육이 주로 양호교사들(92%)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된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생리현상, 성장하는 기쁨, 성폭력 예방의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의 내용과 최근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조현상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도덕, 사회, 자연, 체육 등의 교과목에서 성과연관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자연과 체육시간에는 성장이나 생리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도덕과 사회시간에는 성역할 등의 성문화적 현상을 주로 다룬다(교육부 중등장학관실, 1996; 김성주, 1996).

하지만 성교육이란 용어가 정착되고 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성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성교육 내용의 문제와 성교육 지지체계의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성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학교 성교육의 의도가 정결 혹은 순결 교육에 있었다는 점이다. 성교육과 순결교육을 등가적인 것으로 보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강

조한 것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관념을 주입한 것으로 성을 억압되어야 할 것,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성의 생식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적 쾌락의 의미나 성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교과목 선정과, 교과서의 내용, 교사들의 성차별적인 학생지도 태도 등으로 아동들에게 성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성간의 차이를 확대하여 보여주었다(교육부, 1999)

학교 성교육의 지지체계의 문제는 성적 중심의 교과편성(양해경, 1996), 교재나 자료의 부족, 교사들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무지(김설희, 1991; 김옥순, 1991; 안창선, 김현옥, 1991; 홍길유, 1989) 등과 관련된다.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위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생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에 대한 지침이 여전히 부족하여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재분, 1996). 다른 문제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나 교육 행정과 관련된다. 일선에 있는 많은 교사들이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이고 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교과목인 경우 전담교사제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전 교과목을 담임교사 혼자서 책임지는 초등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아동들에게 완충지대 없이 그대로 전수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정책을 세우는 교육 행정 당국의 시각도 문제이다. 1998년 교육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젖어있는 교육관료들이 성교육 정책의 중요한 입안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까지 전화된 인상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보다 밝고 적극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성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알도록 할 수 있고, 성교육 과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충분한 지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성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성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있

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를, 주어진 선택 사항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의 C시와 B군에서 임의로 선정된 초등학교 2개교의 4, 5, 6학년 각 2개반씩 12개반의 학생 453명이었다. 학년별로 각 151명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은 200명(44.2%)이었고, 학년별 여학생 수는 각 64명(42.4%), 76명(50.3%), 70명(39.7%)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는 학년과 성별만 표시하게 된 용지로,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 혹은 '성교육 시간에 배우고 싶은 것'을 세 가지씩 쓰도록 요구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각 학교 양호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의 보장, 그리고 질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협조를 허락한 양호교사들은 2000년 5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12개 학급에서 각각 학생들에게 연구 취지와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전의 연구(1999, 이은주)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내용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전에 각 연구 참여자에게 번호(첫 알파벳은 지역, 다음 숫자는 학년, 두번째 알파벳은 성별, 그리고 마지막 두 자리 수는 각 집단별 학생번호. 예, C4F01은 C시의 4학년 여학생 1번)를 부여하였다

대상자들의 응답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분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연구(1999, 이은주)에서 나온 항목에 따라 각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 요구를 내용별로 분류였다(지식요구 항목). 다음에 각 항목을 다시 분류하고(지식요구 하부항목), 이를 세분하였다(지식요구 세부항목). 예를 들면,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만나서 아기가 되나요'하는 질문은 '재생산' 지식요구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다시 '임신'이라는 지식 요구 하부 항목에 그리고 '임신 기전'이라는 지식 요구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의 '이성교제'와 '기타' 2개 항목은 삭제되었고, 몇 개의 항목에서 하부항목과 세부항목이 삭제 혹은 수정되었다(연구 결과 참조)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첫단계에서 분류된 각 항목, 하부항목, 세부항목 내에서 서로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질문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재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항목, 하부항목 및 세부항목별 성에 대한 지식요구를 전체, 성별 및 학년별로 요구내용과 빈도차이를 비교하였다. 자료는 C시와 B군 두 지역의 학생들에서 수집한 것이었으나, 조사 대상이 두 지역에서 각 1개교에 불과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다고 한 것은 1309개였으나, 이중 114개는 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로 건강과 관련한 질문이었다. 이는 평소 양호교사가 건강교육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에게 응답을 요구할 때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3가지씩 쓰도록 요구했으나, 최대 8개의 질문을 쓴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3가지 이상을 쓴 경우, 참여자들의 질문 목록에 모두 포함시켰다. 아동들이 알고 싶다고 서술한 것은 '성폭력' '난자'와 같이 명사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는 왜 그런가요' '--가 뭐예요'와 같이 질문형식을 띠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쓴 것은 모두 1195개(여학생질문, 46.4%)였으며, 4학년 432개(여학생질문, 43.8%), 5학년 387개(여학생질문, 53.2%), 6학년 376개(여학생질문, 42.3%)였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질문수는 2.6개였으며, 여학생 1

인당 평균 질문수(2.8개)가 남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2.5개)보다 많았고, 평균 질문수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4학년 여학생(3.0개)이었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질문수가 가장 적었던 집단은 6학년 남학생(2.4개)이었다(<표 1> 참조).

연구대상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 혹은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기술한 것, 즉 '성지식 요구' 1195개(100.0%)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재생산'(310개, 25.9%), '성문화'(230개, 19.2%) '성개념'(215개, 18.0%), '사춘기의 변화'(172개, 14.4%), '성건강'(119개, 10.0%), '생식기관 해부생리'(78개, 6.5%), 그리고 '성적 경향 및 행위'(71개, 5.9%) 등의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질문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재생산'은 남녀학생 각 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었으며, 학년별로 보았을 때 5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었다. '성문화'항목은 4학년 남녀학생집단에서 각 빈도가 가장 높았고, '사춘기의 변화' 항목은 6학년 남녀학생 집단에서 각각 가장 빈도가 높았다.

대상자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 항목의 종류와 빈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이은주, 1999)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이성교제'항목에 속할 수 있는 질문이 없었으며, '성적 충동, 행위 및 경향'과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대한 질문 빈도가 훨씬 낮았다.

1. 사춘기의 변화에 대한 지식 요구

'사춘기의 변화' 항목은 사춘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질문들로 172개(100.0%)였다. 하부항목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124개, 72.1%), 사춘기가 있는 '이유'(34개, 19.8%), '정신적 변화'(14개, 8.1%)로 구분되었다(<표 2> 참조).

이 항목은 6학년 남녀학생 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어서 현재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을 보여 주었다. 아동들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학생들은 '여드름이나 주근깨'와 같은 피부문제와 왜 사춘기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남학생들은 음모를 포함한 다른 신체 부위의 '체모'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사춘기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질문은 6학년에서 많았으며, 질문 내용은 '사춘기엔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들었는데 그것뿐인가요(C6F20)'나 '사춘기할 때는 왜 남을 좋아하게 되나요(B5F14)'와 같이 심리적 변화나 성적 관심 증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 특히 심리적 변화인 경우 그 변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 성지식 항목별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학 생 | | | | 남 학 생 | | | | 계 |
|---------------|----------------|----------------|----------------|----------------|----------------|----------------|----------------|----------------|------|
| | 4 | 5 | 6 | 소 계 | 4 | 5 | 6 | 소 계 | |
| 사춘기변화 | 14 (7.4) | 22 (10.7) | 44 (27.5) | 80 (14.4) | 8 (3.3) | 13 (7.2) | 71 (32.9) | 92 (14.4) | 172 |
| 생식기관 해부생리 | 11 (5.8) | 24 (11.7) | 18 (11.2) | 53 (9.5) | 9 (3.7) | 7 (3.9) | 9 (4.2) | 25 (3.9) | 78 |
| 재생산 | 52 (27.5) | 69 (33.5) | 30 (18.8) | 151 (27.2) | 58 (23.9) | 51 (28.2) | 50 (23.1) | 159 (24.8) | 310 |
| 성건강 | 9 (4.8) | 19 (9.2) | 22 (13.8) | 50 (9.0) | 19 (7.8) | 25 (13.8) | 25 (11.6) | 69 (10.8) | 119 |
| 성개념 | 32 (16.9) | 29 (14.1) | 11 (6.9) | 72 (13.0) | 63 (25.9) | 51 (28.2) | 29 (13.4) | 143 (22.3) | 215 |
| 성적 경향 및 행위 | 10 (5.3) | 14 (6.8) | 10 (6.3) | 34 (6.1) | 3 (1.2) | 17 (9.4) | 17 (7.9) | 37 (5.8) | 71 |
| 성문화 | 61 (32.3) | 29 (14.1) | 25 (15.6) | 115 (20.7) | 83 (34.2) | 17 (9.4) | 15 (6.9) | 115 (18.0) | 230 |
| 계 | 189 (100.0) | 206 (100.0) | 160 (100.0) | 555 (100.0) | 243 (100.0) | 181 (100.0) | 216 (100.0) | 640 (100.0) | 1195 |
| 1인당평균 질문수 | 3.0 | 2.7 | 2.7 | 2.8 | 2.8 | 2.4 | 2.4 | 2.5 | 2.6 |

<표 2> 사춘기 하부항목별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 | | | 남 | | | | 계 |
|-------------|---------------|---------------|---------------|---------------|--------------|---------------|---------------|---------------|----------------|
| | 4 | 5 | 6 | 소 계 | 4 | 5 | 6 | 소 계 | |
| 이유/정의 | 4 (28.6) | 6 (27.3) | 13 (29.5) | 23 (28.8) | 4 (50.0) | 2 (15.4) | 5 (7.0) | 11 (12.0) | 34 (19.8) |
| 신체적변화 | 9 (64.3) | 15 (68.2) | 27 (61.4) | 51 (63.8) | 3 (37.5) | 10 (76.9) | 60 (84.5) | 73 (79.3) | 124 (72.1) |
| 전반적성장 | 0 | 8 | 4 | 12 | 0 | 0 | 9 | 9 | 21 |
| 변성 | 0 | 2 | 6 | 8 | 0 | 1 | 14 | 15 | 23 |
| 여드름/ 주근깨 | 6 | 1 | 11 | 18 | 3 | 0 | 12 | 15 | 33 |
| 유방 | 0 | 3 | 2 | 5 | 0 | 0 | 0 | 0 | 5 |
| 체모 | 3 | 1 | 4 | 8 | 0 | 9 | 25 | 34 | 42 |
| 정서적변화 | 1 (7.1) | 1 (4.5) | 4 (9.1) | 6 (7.5) | 1 (12.5) | 1 (7.7) | 6 (8.5) | 8 (8.7) | 14 (8.1) |
| 계 | 14 (100.0) | 22 (100.0) | 44 (100.0) | 80 (100.0) | 8 (100.0) | 13 (100.0) | 71 (100.0) | 92 (100.0) | 172 (100.0) |

또 후기 학령기 아동들은 ‘남자와 여자는 왜 사춘기 시절을 가져야 하는가(C4F21)’ ‘어른이 되려면 왜 사춘기를 거처야 하나(B6F15)’처럼 중고교 학생들(이은주, 1999)은 하지 않은 질문을 하였다.

2. 생식기관 해부생리에 대한 지식 요구

‘생식기관 해부생리’(78개, 100%) 항목에는 생식과 관련한 남녀의 기관 혹은 생리적 기전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며, ‘여성생식기’(58개, 74.4%), ‘남성생식기’(11개, 14.1%), ‘기타’(9개, 11.5%) 하부항목 순으로 질문빈도를 보였다(<표 3> 참조).

가장 질문빈도가 높은 ‘여성생식기’인 경우 그 대부분이 ‘생리’(50개) 세부항목에 관한 것이었으며, 여학생(43개)이 남학생(7개)보다 질문 빈도가 훨씬 높았다. 이전의 연구(이은주, 1999)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질문 빈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들보다 낮았는데, 이는 아직 생리가 시작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리에 관한 질문은 ‘생니(생리)가 뭐예요(B4F03)’, ‘여자는 어디서 피가 나는가요(B4M35)’, ‘생리는 무엇인가. 나는 생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00는 그것도 생겼는데... 우리 엄마께서 말하는데 피가 나오면 생리라고 말했다(B5F27)’과 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자만 왜 월경을 해야 하나요(B6F10)’와 같이 여성들만이 생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 이런 경향 역시 이전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하는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었다. ‘생리’에 관한 것 외의 여성생식기와 관련한 질문 내용은 난자, 자궁 등에 관한 것이었다.

‘남성 생식기’에 대한 질문은 ‘남자한테는 고추가 있는데 그 아래 동그란 2개인 봉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B4M22)’와 같은 고환의 기능이나 음경의

<표 3> 생식기관 해부생리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 | | | 남 | | | | 계 |
|-------|---------------|---------------|---------------|---------------|--------------|--------------|--------------|---------------|---------------|
| | 4 | 5 | 6 | 소 계 | 4 | 5 | 6 | 소 계 | |
| 여성생식기 | 7 (63.6) | 21 (87.5) | 17 (94.4) | 45 (84.9) | 5 (55.6) | 6 (85.7) | 2 (22.2) | 13 (52.0) | 58 (74.4) |
| 생리 | 7 | 19 | 17 | 43 | 2 | 4 | 1 | 7 | 50 |
| 기타 | 0 | 2 | 0 | 2 | 3 | 2 | 1 | 6 | 8 |
| 남성생식기 | 3 (27.3) | 2 (8.3) | 1 (5.6) | 6 (11.3) | 3 (33.3) | 0 (0.0) | 2 (22.2) | 5 (20.0) | 11 (14.1) |
| 기타 | 1 (9.1) | 1 (4.2) | 0 (0.0) | 2 (3.8) | 1 (11.1) | 1 (14.3) | 5 (55.5) | 7 (28.0) | 9 (11.5) |
| 계 | 11 (100.0) | 24 (100.0) | 18 (100.0) | 53 (100.0) | 9 (100.0) | 7 (100.0) | 9 (100.0) | 25 (100.0) | 78 (100.0) |

기능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정말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꿈을 꾸면 쉬를 하나요(C5F20)’와 같이 몽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기타’ 하부항목은 모두 성호르몬의 정의와 기능을 묻는 것이었다.

3. 재생산에 대한 지식 요구

가장 질문 빈도가 높은 ‘재생산’ 항목은 2세의 생산과 관련된 임신, 출산 그리고 태아 등에 관련된 내용들의 질문을 포함한다. 이 항목으로 분류된 질문(310개, 100.0%)의 하부항목은 ‘임신(174개, 56.1%)’, ‘출산(85개, 27.4%)’ ‘태아’(33개, 10.6%) 그리고 ‘임신해야 하는 이유’(18개, 5.8%)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왔던 하부항목인 불임과 유산에 관련된 질문은 없었으나, 태아에 대한 질문은 더 많았다(<표 4> 참조).

‘임신’에 대한 지식 요구 중에는 ‘임신기전’(89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은 남녀모두 4, 5학년에서 더 많았으며, 여학생들의 질문 비율이 높았다. 질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아기를 갖게 되는가(C5F43)’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남자와 여자는 왜 짝짓기를 해야 아기가 태어날까(B4M40), ‘왜 남자의 아기 만드는 세포가 여자 쪽으로 갈까(B4M03)’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면 왜 애기가 생기지. 아빠의 몸에 정자가 엄마의 난자와 만나면 난자 속에서 자란다. 그런데

어떻게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로 갈 수 있는가(B5F17)’와 같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지, 즉 임신과 성행위의 관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참여자들은 또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거나 임신해야 하는 이유 ‘여성임신’(57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많아 임신이 여성의 삶에 주는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남성임신’(12개)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며, 이 질문 역시 여학생에서 더 많았다. 이런 경향은 이전의 연구(이은주, 1999)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임신 가능한 연령’(6개)에 대한 질문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신 가능기간(배란기)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 ‘임신’ 하부항목의 ‘기타’(10개) 세부항목에는 주로 임신시의 변화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

‘출산’에 대한 질문은 ‘출산기전’(83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출산 통증’(2개)을 묻기도 하였다. ‘출산기전’에 대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C5M42)’처럼 출산과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아기는 어디로 나와요(B6M13)’와 같이 아기가 나오는 부위를 묻기도 했다.

남아에게서 더 많았던 ‘태아’에 대한 지식 요구는 ‘배안에 있는 아기는 결혼한 여자의 배꼽 안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여자가 음식을 먹은 것을 어떻게 아기가 먹나요(B4M21)’ ‘아기는 언제쯤 손 같은 것이 생기나요(C6M41)’처럼 태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표 4> 재생산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 항목 | 여 | | | 소 계 | 남 | | | 소 계 | 계 |
|--------|---------------|---------------|---------------|----------------|---------------|---------------|---------------|----------------|----------------|
| | 4 | 5 | 6 | | 4 | 5 | 6 | | |
| 임신하는이유 | 4 (7.7) | 4 (5.8) | 2 (6.7) | 10 (6.6) | 2 (3.4) | 3 (5.9) | 3 (6.0) | 8 (5.0) | 18 (5.8) |
| 임신 | 32 (61.5) | 42 (60.9) | 20 (66.7) | 94 (62.3) | 34 (58.6) | 28 (54.9) | 18 (36.0) | 80 (50.3) | 174 (56.1) |
| 기전 | 10 | 29 | 8 | 47 | 20 | 15 | 7 | 42 | 89 |
| 가능연령 | 0 | 0 | 2 | 2 | 0 | 1 | 3 | 4 | 6 |
| 여성임신 | 15 | 8 | 8 | 31 | 11 | 10 | 5 | 26 | 57 |
| 남성임신 | 3 | 5 | 1 | 9 | 2 | 0 | 1 | 3 | 12 |
| 기타 | 4 | 0 | 1 | 5 | 1 | 2 | 2 | 5 | 10 |
| 출산 | 16 (30.8) | 14 (20.3) | 5 (16.7) | 35 (23.2) | 15 (25.9) | 16 (31.4) | 19 (38.0) | 50 (31.4) | 85 (27.4) |
| 출산기전 | 16 | 13 | 5 | 34 | 15 | 16 | 18 | 49 | 83 |
| 출산통증 | 0 | 1 | 0 | 1 | 0 | 0 | 1 | 1 | 2 |
| 태아 | 0 (0.0) | 9 (13.0) | 3 (10.0) | 12 (7.9) | 7 (12.1) | 4 (7.8) | 10 (20.0) | 21 (13.2) | 33 (10.6) |
| 계 | 52 (100.0) | 69 (100.0) | 30 (100.0) | 151 (100.0) | 58 (100.0) | 51 (100.0) | 50 (100.0) | 159 (100.0) | |

태중이나 태몽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임신하는 이유’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없던 항목으로 아동들은 ‘궁금한 것은 왜 어른들은 아기를 배나 궁금합니다(B4F19)’, ‘아기는 왜 낳아야 하나요(C6M23)’ 하고 궁금해했다.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의 ‘재생산’에 대한 지식 요구는 중고교생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세부항목이 단순하였고, 각자의 성별의 입장에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정도도 낮았다. 대신 본 연구의 아동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질문이 더 많아, 성교육 시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동들에게는 더 많은 궁금증을 낳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태아의 성장에 대한 질문은 성교육 시간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섭취한 영양소가 아기에겐 간다’는 추상적인 설명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이 시기 아동들의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성건강에 대한 지식 요구

‘성건강’ 항목은 생식기계와 관련한 질환과 생식의 조절을 위한 방법에 관한 질문(89개, 100.0%)으로, ‘에이즈와 성병(83개, 69.7%)’, ‘포경수술(26개, 21.8%)’, ‘피임(9개, 7.6%)’, 그리고 ‘기타(1개, 0.8%)’ 하부항목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표 5> 참조).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질문은 주로 ‘에이즈’(64개)에 관한 것이었으며, ‘에이즈’의 정의, 원인, 치유가능성, 예

방법, 증상 등에 대해 물었다. ‘성병(19개)’에 대해서는 정의, 종류, 증상, 예방법 등을 물었다. 이 항목은 여학생 5학년, 남학생 5, 6학년의 질문 빈도가 높았고, 남녀 집단에서는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 생활에서 보기 힘든 이런 질환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은 성교육 시간이나 마스크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경수술’에 대해서는 ‘포경수술은 꼭 해야 해요(C4M48)’와 같이 이유나 필요성을 묻거나, ‘왜 남자만 고래사냥을 해야하나요(C4M44)’와 같이 남자만 해야 하는 이유를 항의 하기도 했다. 여학생들이 생리나 임신을 “여성들만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현한 것처럼, ‘포경수술’에 대한 질문은 남학생들이 더 많은 것은 이들이 느끼는 중압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임’에 대한 지식 요구는 피임 ‘정의’(4개) ‘방법’(5개)에 대한 것이 있었으며, 여학생 질문이 더 많았고,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피임에 대한 질문 내용은 ‘피임이 뭐예요(B4F08)’나 ‘아기를 안난다고(안낳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C6F22)’와 같은 피상적인 질문과 함께 ‘콘돔은 효과가 있는지(B5M01)와 같이 구체적인 피임방법의 효과를 묻는 것도 있었다. 이 하부항목은 중고교생을 대상 조사(이은주, 1999) 보다 빈도도 낮고 질문 내용도 피상적이었다.

5. 성개념에 대한 지식 요구

세번째로 빈도가 높은 항목인 ‘성개념’에 대한 질문은

<표 5> 성건강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 항목 | 여 학생 | | | | 남 학생 | | | | 단위: 개(%) | | |
|----------|--------------|---------------|---------------|---------------|---------------|---------------|---------------|---------------|----------------|--|--|
| | 4 | 5 | 6 | 소계 | 4 | 5 | 6 | 소계 | | | |
| 피임 | 2 (22.2) | 2 (10.5) | 3 (13.6) | 7 (14.0) | 0 (0.0) | 1 (4.0) | 1 (4.0) | 2 (2.9) | 9 (7.6) | | |
| 정의 | 2 | 1 | 0 | 3 | 0 | 0 | 1 | 1 | 4 | | |
| 방법 | 0 | 1 | 3 | 4 | 0 | 1 | 0 | 1 | 5 | | |
| 포경수술 | 4 (44.4) | 1 (5.3) | 1 (4.5) | 6 (12.0) | 17 (89.5) | 3 (12.0) | 0 (0.0) | 20 (29.0) | 26 (21.8) | | |
| 에이즈 및 성병 | 3 (33.3) | 16 (84.2) | 17 (77.3) | 36 (72.0) | 2 (10.5) | 21 (84.0) | 24 (96.0) | 47 (68.1) | 83 (69.7) | | |
| 에이즈 | 1 | 16 | 9 | 26 | 0 | 21 | 17 | 38 | 64 | | |
| 성병 | 2 | 0 | 8 | 10 | 2 | 0 | 7 | 9 | 19 | | |
| 기타 | 0 (0.0) | 0 (0.0) | 1 (4.5) | 1 (2.0) | 0 (100.0) | 0 (100.0) | 0 (100.0) | 0 (0.0) | 1 (0.8) | | |
| 계 | 9 (100.0) | 19 (100.0) | 22 (100.0) | 50 (100.0) | 19 (100.0) | 25 (100.0) | 25 (100.0) | 69 (100.0) | 119 (100.0) | | |

<표 6> 성개념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 | | | 남 | | | | 계 |
|---------|---------------|---------------|---------------|---------------|---------------|---------------|---------------|----------------|----------------|
| | 4 | 5 | 6 | 소 계 | 4 | 5 | 6 | 소 계 | |
| 성의 정의 | 4 (12.5) | 1 (3.4) | 7 (63.6) | 12 (16.7) | 6 (9.5) | 8 (15.7) | 11 (37.9) | 25 (17.5) | 37 (17.2) |
| 성별구분이유 | 6 (18.8) | 6 (20.7) | 0 (0.0) | 12 (16.7) | 5 (7.9) | 8 (15.7) | 0 (0.0) | 13 (9.1) | 25 (11.6) |
| 신체 차이 | 18 (56.3) | 21 (72.4) | 4 (36.4) | 43 (59.7) | 46 (73.0) | 29 (56.9) | 16 (55.2) | 91 (63.6) | 134 (62.3) |
| 전반 | 0 | 3 | 1 | 4 | 2 | 0 | 0 | 2 | 6 |
| 힘/근육/운동 | 2 | 6 | 2 | 10 | 16 | 10 | 4 | 30 | 40 |
| 성기 | 1 | 0 | 0 | 1 | 8 | 5 | 3 | 16 | 17 |
| 유방/자궁 | 10 | 2 | 0 | 12 | 10 | 3 | 4 | 17 | 29 |
| 목소리 | 1 | 1 | 1 | 3 | 1 | 1 | 3 | 5 | 8 |
| 체모 | 2 | 8 | 0 | 10 | 4 | 10 | 2 | 16 | 26 |
| 배뇨방법 | 2 | 1 | 0 | 3 | 4 | 0 | 0 | 4 | 7 |
| 기타 | 0 | 0 | 0 | 0 | 1 | 0 | 0 | 1 | 1 |
| 정서/인지차이 | 4 (12.5) | 1 (3.4) | 0 (0.0) | 5 (6.9) | 6 (9.5) | 6 (11.8) | 2 (6.9) | 14 (9.8) | 19 (8.8) |
| 계 | 32 (100.0) | 29 (100.0) | 11 (100.0) | 72 (100.0) | 63 (100.0) | 51 (100.0) | 29 (100.0) | 143 (100.0) | 215 (100.0) |

남아들의 질문이 더 많았다. 하부항목은 남녀간의 ‘신체의 차이’(134개, 62.3%), ‘성의 정의’(37개, 17.2%), ‘성별구분이유’(25개, 11.6%), 남녀간의 ‘정서/인지차이’(19개, 8.8%)로 구분되었다<표 6 참조>.

남녀간의 ‘신체 차이’에 대한 질문은 남학생과 저학년에서 더 많았다. 이 하부항목은 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힘/근육/운동’(40개)에 대한 것으로, ‘왜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B4M14)’ ‘왜 남자는 근육이 있는데 여자는 없는가(B5M09)’ ‘왜 여자들은 운동 같은 것을 못합니까(B4M07)’라는 식의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한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또 남학생들은 ‘성기’(17개)에 대해, ‘왜 여자는 그것이 없고, 남자는 있는가(C5M33)’, ‘남자는 고추가 있는데 여자는 왜 고추가 없는가(B5M07)’와 같이 성기를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는 있는 것이라는, 상질 혹은 부재의 개념으로 여성성기에 대해 물었다. ‘체모’(26개)와 ‘유방/자궁’(29개)의 유무 역시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예, ‘남자는 수염이 있는데 왜 여자는 수염이 안나나요(B5M21)’). 이외에 남성만 왜 ‘목소리’(8개)가 변화하는지, ‘왜 오줌을 쌀 때는 남자는 서서 싸고 여자는 앉아 싸나요(C4F04)’와 같이 ‘배뇨자세(7개)’가 남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리고 ‘신체 전반’(6개) 등의 차이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성개념’의 하부항목 중에서 두번째로 빈도가 높은 ‘성의 정의’에 대해, 아동들은 ‘성이 뭐예요(C6F05)’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몇 살부터 성이 생기나요(C5M28)’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남아에서 더 많았으며 학년이 높은 경우에 더 많았다.

‘성별구분이유’는 ‘여자와 남자는 왜 구별되었을까(B4F19)’ ‘왜 남자와 여자가 분류되었나요(C5M26)’와 같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정서/인지 차이’에 대한 질문은 ‘여자는 왜 똑똑할까(B4M14)’ ‘여자들은 왜 흥분을 잘하고... (B5M16)’ ‘...어쩔 때는 온순하고 어쩔 때는 성질이 나는 사람으로 변할까(B4M04)’와 같이 여자는 똑똑하지만 성질이 나쁜 존재로 여기는 남아들의 질문이 많았고, 대신 여아들은 ‘남자는 왜 내성적일까(C4F31)’ ‘왜 남자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요(B4F17)’처럼 남아들의 정서적 특징을 물었다.

남녀간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난 아동들의 성개념은 ‘남녀를 구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여성은 자궁/유방이 있는 똑똑한 존재이나 성기가 없고 수염이 안나며, 오줌도 앉아서 누다. 남성은 힘이 세고 성기가 있으며, 수염도 나고 오줌도 서서 누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라고 요약할 수 있었다. 아동들의 이러한 성개념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인지적으로 아직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의 인지적

성숙이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들이 대립적인 개념(있다/없다, 세다/약하다)을 사용하여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학교 성교육의 내용에서 같은 성내의 차이(differences within the same sex)보다 성간의 차이(differences between sexes)를 더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들이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였다.

6. 성적 경향 및 행위에 대한 지식 요구

'성적 경향 및 행위'에 대한 지식 요구는 전체의 질문 1195개 중 71개로 대상자들의 질문이 가장 적은 항목이었다. 이는 중고교생에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질문 빈도가 높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또 하부 항목의 분류도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단순하였다. 이 항목(71개, 100.0%)의 하부항목 '이성애'(35개, 49.3%)와 '동성애'(33개, 46.5%)대한 질문은 유사한 빈도를 보였으며, '자위행위'(3개, 4.2%)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표 7> 참조).

'이성애'에 대한 질문은 이성애적 '감정'(18개)과 이성애적 '행위'(17개) 세부항목에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성은 왜 남자를 좋아하는가(C4F19)', '왜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나요(B5F03)' 그리고 '왜 아저씨들은 여자의 몸을 불려고 할까(B6M10)', '애인이 있으면 왜 키스해요(B4M38)' '남자랑 여자는 왜 같이 자고 싶어하죠(B6F06)'와 같이 이성애적 감정이 생기고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성애적 '감정'에 대한 질문은 여아가, '행위'에 대한 질문은 남아가 더 많

이 했고, 두 유형의 질문에서 학년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남아가 더 많이 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은 '동성연애자 끼리도 아기를 낳 수 있나요(C5F42)'와 같이 동성애 관계에서의 임신 가능성과 단순히 '동성연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으나, '동성연애 하는 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C6M14)'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질문도 있었다.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은 매우 적었으며, 그 내용은 자위행위의 정의와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성적 경향과 행위에 대한 아동들의 질문은 성적 행위나 감정에 대한 이들의 사고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심하였다. 그리고 이미 사춘기를 경험한 중고교생들과 달리 성적 충동이나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질문이 거의 없었다

7. 성문화에 대한 지식 요구

연구 참여자들의 '성문화'(230개, 100.0%)에 대한 지식 요구는 '성폭력'(123개, 53.5%), '외모 가꾸기'(37개, 16.1%), '가부장적 경향'(37개, 16.1%), '결혼'(16개, 7.0%), 그리고 '기타'(17개, 7.4%) 하부항목들로 분류되었다(<표 8> 참조).

'성폭력'에 대해 여아들의 질문빈도비율이 남아보다 약간 높았으며, 남아아동 모두 4학년에서 훨씬 높았다. 아동들은 '아저씨들 중에 왜 성폭력을 하려는 사람이 있나요(C4F03)' '어른들은 왜 애들에게 성폭행을 할까(C5M21)'와 같이 성폭력이 발생 '원인'(55개)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고, 여아들이 더 많이 묻은 성폭력 '피해대책'(23개)은 '성폭행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표 7> 성적 경향 및 행위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 | | | 남 | | | | 계 |
|------|---------------|---------------|---------------|---------------|--------------|---------------|---------------|---------------|---------------|
| | 4 | 5 | 6 | 소계 | 4 | 5 | 6 | 소계 | |
| 이성애 | 8 (80.0) | 8 (57.1) | 3 (30.0) | 19 (55.9) | 3 (100.0) | 10 (58.8) | 3 (17.6) | 16 (43.2) | 35 (49.3) |
| 감정 | 6 | 5 | 1 | 12 | 1 | 3 | 2 | 6 | 18 |
| 행위 | 2 | 3 | 2 | 7 | 2 | 7 | 1 | 10 | 17 |
| 자위행위 | 2 (20.0) | 1 (7.1) | 0 (0.0) | 3 (8.8) | 0 (0.0) | 0 (0.0) | 0 (0.0) | 0 (0.0) | 3 (4.2) |
| 동성애 | 0 (0.0) | 5 (35.7) | 7 (70.0) | 12 (35.3) | 0 (0.0) | 7 (41.2) | 14 (82.4) | 21 (56.8) | 33 (46.5) |
| 계 | 10 (100.0) | 14 (100.0) | 10 (100.0) | 34 (100.0) | 3 (100.0) | 17 (100.0) | 17 (100.0) | 37 (100.0) | 71 (100.0) |

<표 8> 성문화 하부항목별 지식 요구 빈도

단위: 개(%)

| 항목 | 여 학 생 | | | | 남 학 생 | | | | 계 |
|---------|---------------|---------------|---------------|----------------|---------------|---------------|---------------|----------------|----------------|
| | 4 | 5 | 6 | 소 계 | 4 | 5 | 6 | 소 계 | |
| 성폭력 | 36 (59.0) | 11 (37.9) | 17 (68.0) | 64 (55.7) | 46 (55.4) | 4 (23.5) | 9 (60.0) | 59 (51.3) | 123 (53.5) |
| 정의 | 6 | 0 | 0 | 6 | 11 | 2 | 0 | 13 | 19 |
| 원인 | 18 | 4 | 2 | 24 | 26 | 1 | 4 | 31 | 55 |
| 피해결과 | 1 | 6 | 6 | 13 | 0 | 1 | 1 | 2 | 15 |
| 피해대책 | 9 | 0 | 6 | 15 | 7 | 0 | 1 | 8 | 23 |
| 피해자 | 1 | 0 | 1 | 2 | 0 | 0 | 2 | 2 | 4 |
| 가해자 | 1 | 1 | 0 | 2 | 0 | 0 | 0 | 0 | 2 |
| 기타 | 0 | 0 | 2 | 2 | 2 | 0 | 1 | 3 | 5 |
| 결혼 | 5 (8.2) | 3 (10.3) | 0 (0.0) | 8 (7.0) | 5 (6.0) | 1 (5.9) | 2 (13.3) | 8 (7.0) | 16 (7.0) |
| 외모가꾸기 | 4 (6.6) | 12 (41.4) | 2 (8.0) | 18 (15.7) | 14 (16.9) | 4 (23.5) | 1 (6.7) | 19 (16.5) | 37 (16.1) |
| 두발 | 3 | 6 | 1 | 10 | 11 | 3 | 1 | 15 | 25 |
| 의복 | 1 | 5 | 1 | 7 | 0 | 0 | 0 | 0 | 7 |
| 화장 | 0 | 1 | 0 | 1 | 3 | 1 | 0 | 4 | 5 |
| 가부장적 경향 | 11 (18.0) | 3 (10.3) | 3 (12.0) | 17 (14.8) | 15 (18.1) | 5 (29.4) | 0 (0.0) | 20 (17.4) | 37 (16.1) |
| 부계 성 | 4 | 0 | 0 | 4 | 11 | 0 | 0 | 11 | 15 |
| 남녀차별 | 7 | 3 | 3 | 13 | 4 | 5 | 0 | 9 | 22 |
| 기타 | 5 (8.2) | 0 (0.0) | 3 (12.0) | 8 (7.0) | 3 (3.6) | 3 (17.6) | 3 (20.0) | 9 (7.8) | 17 (7.4) |
| 계 | 61 (100.0) | 29 (100.0) | 25 (100.0) | 115 (100.0) | 83 (100.0) | 17 (100.0) | 15 (100.0) | 115 (100.0) | 230 (100.0) |

하나요(C4F14)'와 같이 예방대책이나 성폭력을 당할 때와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묻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결과'(15개)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당하면 꼭 정자와 난자가 만나나요(C5F42)' '성폭력 하게 되면 병원에 왜 다녀요, 그리고 왜 병에 걸려요(C5F05)'라고 물었으며, 이 역시 여아들의 질문이 많았다.

성폭력 '정의'(19개)에 대한 질문은 남아와 저학년에서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4개)에 대한 질문은 '왜 여자들은 성폭력을 당해야 하나요(C4F03)'와 같은 여성피해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남아들은 남자도 성폭행을 당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아동들은 성폭력 '가해자'(2개)가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으며, '기타'(5개) 세부항목에서는 '성폭행을 신고하기 꺼려하는 이유(C6F16)'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다.

아동들이 성폭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이를 학교 성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대중매체에서 보도하는 일이 잦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동들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남아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하지만 여아에게서 '피해대책'과 '피해결과'에 대한 질문이 더 많고,

피해결과가 주로 임신과 관련된 내용인 것을 감안할 때, 여아들이 성폭력에 대해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여성들의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하부항목 '가부장적 경향'은 '남녀차별'(22개)과 '부계 성'(15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에 대해 아동들은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해야 하나(C4M43)' '여자보다 남자가 왜 더 중요하다고 할까(B5F30)' '왜 엄마들은 아들만 좋아할까(B6F05)' '왜 남자보다 여자가 성에 대해 더 배울 것이 많고, 왜 여자만 모든 것이 많고 주의해야 하고 지킬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C6F36)'라고 항의하고, 또 '왜 남자는 직장 가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나(B5M27)'처럼 고정적인 성역할 구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부계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동들의 질문은 주로 '이름의 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서, '왜 아버지 성을 따르는가(C4M09)', '이름에 성은 왜 있나요(C4M14)'와 같이 가부장제의 기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남녀차별'에 대해서는 여아가, '부계 성' 따르기에 대해서는 남아가 더 많이 물었는데, 이런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은 중고교학생 대상 조사(이은주, 1999)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외모 가꾸기'에 질문은 '두발'(25개) '의복'(7개) '화장'(5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두발'에 대해서는 '여자는 왜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왜 머리가 짧을까(B4M35)', '의복'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왜 브레이저를 할까요(B4F21)', '왜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못 입나요(B5F16)'라고 묻고, 또 '화장'에 대해서는 '여자는 왜 화장을 할까(B4M35)와 같이 물어 요즈음 남성들의 머리 기르기, 화장하기 등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모 가꾸기가 여성의 고정적인 성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16개)에 대해 '왜 꼭 결혼해야 해요(B5M25)'처럼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왜 여/남만 결혼하는가(C4M42)'와 같이 이성간의 결혼만 가능한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

성문화의 '기타(17개)' 하부항목에서는 '남자들은 왜 군대에 가나(B4F23)' '성교육은 왜 시키는지(B5M04)'와 같은 질문을 비롯하여 '매춘이 뭐예요(B4F08)', '원조교재란 어떤 것인가, 섹스 같은 것인가(C6F20)',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 성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왜 그렇지 못 할까(C6F20)' '바이그라가 뭐예요(C6F10)'라 등의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들은 아동들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성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문화' 항목에 대한 질문 빈도 비율은 여아와 4학년에서 더 높았고, 성폭력 등과 같은 전체 질문에 대한 하부항목 비율 역시 여학생들이 높아,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이 시기의 아동들도 남녀차별적인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V. 논 의 :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즉 성에 대해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조사가 이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이은주, 1999)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지식 요구에 대한 조사는 이 시기 아동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 줄 것이다. 여기서는 성에 대해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젠더(gender), 성행위

를 포함한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세 측면(조주현, 1999a)에서 후기 학령기 아동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고자 한다.

섹스는 생물학적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며, 또 성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젠더는 사회적 존재로서 남성과 여성을 뜻한다. 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 남자로 혹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성, 혹은 문화적 성으로 이해된다(조주현, 1999a). 이 개념은 생물학적 성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기도 하다(조주현, 1999b, p22-23). 섹슈얼리티란 '섹스'에 관한 생각, 의미, 그리고 사회적 관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독신제도와 같은 사회적 관행,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성적 경향성 또는 성적체성, 성적 욕망, 그리고 성적관계 또는 성적지성(Mauthner, 1996, p134-135)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1. 섹스(sex)에 대한 이해

후기 학령기 아동들은 재생산 항목에 대한 질문에서 섹스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들의 질문의 초점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집중되었다. 이는 교사나 부모가 남자와 정자의 만남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성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교사들 역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이 질문이라고 한다(제주여성민회부설 여성상담소, 1997).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행위를 모방할까 두려워하고, 아동들이 받게될 심리적 충격을 걱정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인간간의 성교를 식물수정이나 동물의 교미 장면으로 대체하여 설명한다(안창선, 김현옥, 1991; 제주도 교육청, 1996). 이러한 설명은 수정 장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성과 동식물의 성에 대한 차이점을 지우고, 인간의 성교행위에 관련한 다양한 요소(예, 사랑과 배려)에 대한 언급을 피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성은 성교를 유일한 목표로 하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지운 채, 실제로는 성교를 그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식들을 늘어놓는 모순 속에 간혀 있는(이지연, 1994) 셈이다.

후기 학령기 아동들은 중고등학생들(이은주, 1999)처

림 직접적으로 생식기 구조에 대해 질문하는 빈도는 낮았지만, 출산에 대한 지식 요구에서 보는 것처럼 아기가 나오는 곳을 물으면서, 우회적으로 여성생식기의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후기 학령기 아동에게 여성의 생식기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까운 것이다. 프로이드(1907/1996)는 어린 아동들이 가지는 성지식 요구에서 중요한 것은 성행위와 아기의 출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성인들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고 얼버무린다. 아동들은 양성간의 차이를 알 수 없고, 또 여성생식기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론, 예를 들어 황새 우화(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 혹은 배설이론(아기가 배설물처럼 나온다) -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다리이론(다리 밑에서 주어 왔다)-을 만들어 내어 궁금증을 해소하다가 결국에는 어른들을 불신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프로이드, 1908/김정일 역, 1996).

한편 여아들은 생리나 임신과 같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생물학적 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생리나 임신이 주는 신체적 불편감이나 부담감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에 가해지는 사회문화적 해석과 더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교육이나 상담시에 생리나 임신과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정상적이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현상 혹은 반응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남아들은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술이 주는 두려움이나 불편감 때문이었지만, 포경수술을 모든 남성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효과를 과장하는 잘못된 인식과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포경수술률이 세계 1위인 국가(주간조선, 2000)에 사는 남아들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불안과 불만으로 보였다.

중고교생(이은주, 1999)과 후기 학령기 아동의 생물학적 성 이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후기 학령기 아동의 경우, 남녀간의 생물학적 특성 혹은 차이가 중요한 개념 형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남녀가 왜 힘/근육/운동력, 성기, 체모, 자궁/유방 그리고 배뇨 자세에서 차이가 있는지 대립적인 표현(있다/없다, 세다/약하다, 앉아서/서서)을 사용하여 물었다. 이는 학교 성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여성간이나 남성간의 차이보다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두 성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의도적으로 두 성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과장하기 때문에 성간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났다(앤더슨, 1983/이동원, 김미숙 역, p48, p57).

이러한 점은 아동들의 성기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동들, 특히 남아는 왜 여자들은 우리와 성기가 다른가가 아니라 여자들은 왜 성기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 문화에서 남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다. 생물학적 성 혹은 성차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는가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사실에 하나의 해석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지배문화의 논리로부터 선택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체계모니와 관련되어 하나의 '자연성'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김은실, 1993). 따라서 생물학적 성에 대한 설명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기와 생리적 현상 등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젠더(gender)에 대한 이해

학령기 후기 아동들이 보여준 젠더에 대한 이해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동들은 성인들이 남아를 더 선호하고, 여성은 집에 남성은 직장에 나가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이 성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녀차별적인 성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활동을 독점하거나, 여성에 비해 월등한 선취권을 쥐는 남성지배적인 상황(김동일, 1999)이 전개되는 일상 생활과 교과서 내용(교육부, 1999)이 이들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아들은 왜 여성은 삶이 더 복잡하고 성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 그리도 많은가라고 묻는다.

아동들은 여성과 남성의 외모가 고정적으로 다른 점(예, 수염이 난다) 외에도 가꾸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성역할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발의 길이, 화장, 의복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이전 세대보다 차이가 덜하고, 남성의 외모 가꾸기가 보편화됨에도 아동들은 그것이 남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관리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외모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하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외모는 여전히 취업과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며,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꽃으로 비유되는 사

회는 여성의 창조적 활동을 가로막고, 노동과는 분리된 장식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다(이선옥, 1992).

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성장한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채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런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업과 직업적 성취욕구의 저하를 보이고,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성차별적 역할을 적용시키는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 대표적인 역할인 가장으로서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격이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기 어렵고, 또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적지 않은 비정상적 특성을 지닌 남성들을 불행하거나 특수한 사람으로 격리시킨다(이영자, 1994). 따라서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성역할의 이분적 규정이 미치는 폐해와 남녀차별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고정된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라 양성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이은주, 1999).

3.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이해

성의 섹슈얼리티 측면에 대한 아동들의 질문은 다른 측면에 대한 것보다 적었다. 그러나 아동들이 보여준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은 호기심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사회의 성역할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게되는 수많은 성적 표현물들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성애적 감정을 느끼거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성을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동들이 근접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금지한다. 드라마 속의 남녀는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지만, 부모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적어도 아동 앞에서는- 것을 아는 아동들은 보이는 것과 가려진 것 사이에 뭔가 비밀스럽고 이상한 그 무엇이 있다고 짐작할 것이다.

아동들은 또 애인이 생기면 키스해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같이 자야하는 이유를 물음으로써 사랑하면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랑

과 성행위를 등치에 놓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거나 성폭력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고려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 아동들 보다 이후의 시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이나(이명화, 1998), 이 시기에서부터 사랑과 성의 관계를 인식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들처럼 후기 학령기 아동들도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아직도 질병으로 보거나 정신적 비정상으로서 여기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동성애의 정의, 동성애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논란, 동성애의 원인 등에 대해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이든,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대상 선택과 성기적 행동이라는 면에서 이성애와 연속해 있다(웁스, 1986/1994)는 주장을 성교육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후기 학령기 아동들의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지식 요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성별과 학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 5월 4일-8일 사이에 C시와 B군의 각 1개 초등학교를 선택, 4, 5, 6, 학년 각 2개 학급 총 12개 학급의 아동 453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들에게 성에 대해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것 세 가지를 쓰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두 절차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성별간, 학년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연구 대상아동 총 435명이었고(여학생, 44.2%), 각 학년 모두 151명이었으며, 각 학년의 여학생 비율은 42.4%, 50.3%, 39.7%였다.
2.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는 총 1195개였으며, 이중 여학생의 질문은 555개(45%)였고, 4학년은 432개(여학생 질문 비율 43.8%) 5학년은 387개(53.2%), 6학년은 376개(42.3%)였다. 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는 2.6개였으며, 여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2.8개)가 남학생 1인당 평균 질문수(2.5개)보다 많았다. 평균 질문수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4학년 여학생(3.0개)이었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질문수가 가장

적었던 집단은 6학년 남학생(2.4개)이었다.

3. 후기 학령기 아동들의 성지식 요구를 분류하였을 때 7개의 항목이 나타났으며, 이를 빈도별로 보면 '재생산'(310개, 25.9%), '성문화'(230개, 19.2%) '성개념'(215개, 18.0%), '사춘기의 변화'(172개, 14.4%), '성건강'(119개, 10.0%), '생식기관 해부생리'(78개, 6.5%), 그리고 '성적 경향 및 행위' (71개, 5.9%) 등의 순이었다.
4. 전체 대상자들에서 질문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인 '재생산'은 각 성별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었으며, 학년별로 보았을 때도 5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었다. '성문화'항목은 4학년 남녀학생집단에서 각 빈도가 가장 높았고, '사춘기의 변화' 항목은 6학년 남녀학생 집단에서 각각 가장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임신과 출산, 사춘기에서의 외모 변화, 생식기관의 해부생리,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생물학적 성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성문화 항목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 남녀차별, 성폭력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젠더로서의 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또 이성애와 동성애와 관련한 성적 행위와 성적 감정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섹슈얼리티가 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의 성교육 실무와 연구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실무: 후기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성교육은 이 시기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의 생식기, 임신과 출산의 장면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성의 생리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젠더 차원에 대한 교육 내용을 더 추가하여 우리 사회의 남성우월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런 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비판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에게도 그 수준에 맞는 섹슈얼리티 측면의 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응답을 일회적으로 수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층적인 답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소수의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면담기법을 사용하는 연구는 아동들의 성에 대한 이해방식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족과 성상담소 (1996).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9월 19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최.
- 권순형 (1997).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했을까,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p25-36. 서울: 청년사.
- 교육부 (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서울: 교육부.
- 교육부중등장학관실 (1996). 교육월보, 15(8), p48-50.
- 김동일 (1991). 남녀의 차이(3): 사회심리학적 측면, 김동일(편), 성의 사회학. p71-97. 서울: 문음사.
- 김미주 (1997).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 학교보건학회지, 10(2), p137-156.
- 김설희 (1991).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주 (1996). 초등학교 성교육의 실제, 교육월보, 15(8), p51-55.
- 김옥순 (1991). 국민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지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1993). 여성의 몸: 문화와 의료의 관계. 한국임상성의학회, 여성정신 건강 연구회, 대한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회 추계 합동 학술대회.
- 김중대 (1987). 아동복지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1997). 보통학교체제와 학교규율.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p76-116. 서울: 문화과학.
- 김차영 (1990).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의 성지식, 태도 및 학생에 대한 성교육 요구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9-47.
- 김혜경 (1997).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p222-276. 서울: 문화과학.
- 서울특별시교육청 (1996). 성교육지침. 성남: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성과 행복. 성남: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랜스키, V. P.(윤종희, 이재연 역/1992). 아동기의 실종. 서울: 교보문고.
- 신동원 (1999). 조선사람의 생노병사. 서울: 한겨레신문사.

- 안경식 (1994). 소파방정환의 아동교육 운동과 사상. 서울: 학지사.
- 안창선, 김현옥 (1991). 학교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앤더슨, M.(1983/이동원, 김미숙 역, 1987). 성의 사회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혜경 (1996). 학교 성교육의 실태 분석 및 새로운 제안. 가족과 성상담소(편),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가족과 성상담소.
- 여성사회교육원 (1997). 미래만들기. 서울: 여성사회교육원.
- 윅스, J. (1986/서동진, 채규형역,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성지. 서울: 현실문화연구.
- 이명화 (1998). 청소년의 성의식,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편), 청소년을 사고 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성문화 대책위원회 발족기념 토론회 자료집.
- 이선옥 (1992). 외모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편),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p143-172, 서울: 현암사.
- 이시재 (1988). 필립 아리에스의 심성사 연구. 한국사회사 연구회(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영자 (1994). 성과 사랑. 한국여성연구회(편). p89-118,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 이은주 (1995).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담론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1999).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5(2), p211-234.
- 이재분 (1996). 외국의 성교육. 교육개발, 통권103호. 서울: 교육개발원.
- 이지연 (1994). 십대의 성을 찾아서. 김수기, 서동진, 업혁(편), p95-113, 섹스, 포르노, 에로 티시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 제주도교육청 (1996).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 제주도교육청.
- 제주여민회 여성상담소 (1996). 바람직한 학교 성교육을 위한 토론회. 10월 26일, 제주 카톨릭회관에서 개최.
- 제주여민회 여성상담소 (1997). 초등학교교사를 위한 성교육workshop 자료집. 제주: 제주여민회 여성상담소.
- 주간조선 (2000). 심층해부: 포경수술은 뭐하러 해? 한국 수술률 No.1. 1586호, 1월 13일.
- 조근형 (1997).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p170-221. 서울: 문화과학.
- 조선일보(1996). 성교육: 내년부터 초중교생 대상 정규 교육 실시. 8월 19일.
- 조주현 (1999a). 성, 성문화를 둘러싼 관점. 교육마당, 통권213호, p34-37.
- 조주현 (1999b).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주체의 성격, 한국성폭력상담소(편), 섹슈얼리티 강의, p44-74, 서울: 동녘.
- 최영애 (1996). 성문화의 한국적 현상을 진단한다. 교육개발, 통권103호, p26-3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푸코, M. (1976/이규현역, 1990), 성의 역사(1): 삶의 의지. 서울: 나남.
- 프로이트, S. (1907/김정일 역, 1996), 어린아이의 성교육, 편집부(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p63-76, 서울: 열린 책들.
- 프로이트, S. (1908/김정일 역, 1996), 어린아이의 성이론에 관하여, 편집부(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p77-100, 서울: 열린 책들.
- 플랑드랭, J. L. (1981/동문선 편집부 역, 1994). 성의 역사. 서울: 동문선.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건강한 성만들기: 중학교 성교육지침서.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겨레 (1996).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정교과목 신설은 배제. 7월 17일.
-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Macro, R., Campbell, J. & Wuest Ju. (1933). Feminist critique: Searching for meaning in research. ANS, 16(2), 26-38.
- Mauthner, M. (1996). Understanding sexuality, Beryl Madoc-Jones & Jennifer Coates(eds) Women's Studies, p132-155, Oxford: Blackwell.

Key concept : Needs for sex knowledge, Late schooler

The needs for sex knowledge in the late schooler

*Lee, Eun Joo**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sexual education for late schooler by finding out what they want to know about sex, or to see, if any, its relevancy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and between each grade. The sample for this research was a total of 453 students in 4th, 5th and 6th grade from 12 different classes at two elementary schools which were located in C city and in B province.

The children were requested to write down three points on what they want to know or to learn most about sex, and their answers were put through two analytical stages in order to classify and to examine.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from the data.

1. The female cluster took 44.2% out of the whole sample, and there were 151 students per each grade. The specific girl ratios for each grade were 42.4%, 50.3% and 39.7% respectively.
2. It was noted that a total of 1,195 questions were gathered from the students writings, 45% of the questions was raised by the female students. The 4th grade students raised 432 questions (43.8% by the girl) while the 5th. and the 6th grade students raised 387 (53.2% by the girl) and 376 questions (42.3% by the girl) respectively. The average number of questions per

students was 2.6 while the female students raised 2.8 questions which was more than the average 2.5 questions by male students. It was the 4th grade female student cluster, which raised the most question (3.0) while the 6th grade male students raised the least question (2.4) in average.

3. The questions raised by the children could be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of the knowledge need on sex. They were Reproduction (310 questions, 25.9%), Sexual Culture (230, 19.2%), Concept of sex (125, 18.0%), Changes of Puberty (172, 14.4%), Sexual Health (119, 10.0%), Anatomy and Physiology of Reproductive System (78, 6.5%) and Sexual Tendency and behavior (71, 5.9%).
4. 'Reproduction' was the most frequently raised questions not only by both sex groups but also by the 5th grade students. Both sexes in the 4th grade showed the highest interest in Sexual Culture while it was Changes in Puberty for the both sexes in the 6th grade.

The knowledge need on sex of the children indicated what they understand sexuality. They apprehended sex as sex, gender and sexuality in an inclusive way. They showed a major interest in the biological sex and the sexual activities. It seems that the children managed to understand clearly the meaning of gender, furthermore, they even pointed out that the stereotyped sex role, patrimonial system and the sexual discrimination were unreasonable. The students possessed not only the least but also the most negative understanding in regard of sexuality.

Two suggestions were made from the above conclusions for the practical sex education as well as its research.

1. For the practice: The sex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upper grade school student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

should be relevant with their cognitive characteristics, also it should be more specific on the reproductive organs of both sexes, the actual scenes of the pregnancy and child delivery procedures. The gender concept should be added to the biological sex education, which will lead them to understand the unreasonableness of today's male-superior phenomenon and correct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this age group so as to help

them to understand sex in the sense of sexuality as well.

2. For the research: It is not easy to draw out a through conclusion sinc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one-time data collection. Yet it is undeniably helpful for the sex education if we can understand what the children want to know about sex, how much they know about it by conducting deep-interview researches through a small number of sample.